

# ‘말모이’ 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 50년 역사

## 우리말의 탄생

최경봉 지음

지구상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같은 언어를 쓰는 언어공동체들 중 자신들의 언어로 만든 ‘사전’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전이 있다 해도 서로 다른 언어들을 대응해 만든 대역사전(예 한영사전, 영한사전)에만 기록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언어의 규범이자 기준인 사전이 있다는 사실은 자체 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다. 아니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한글’로 만들어진 우리말 사전을 갖고 있는 언어공동체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한두 권의 두툼한 국어사전이 있었다. 지금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사전을 찾는 일이 흔하지 않다.

최초의 우리말 사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말 사전 편찬사 그 50년 역사를 조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펴낸 ‘우리말의 탄생’은 우리말 사전이 탄생하는 과정 등이 담겨 있다. 저자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편찬실에서 근무하며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책에는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자료와 사진 등이 수록돼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준어는 일찍이 오래된 규범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100년이 되지 않는 ‘신성 언어 규범’이다. 모국어 문법서를 발간하고 모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규범화의 시작이자 결과’다. 비록 서구와는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에게 규범화 작업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일합방과 맞물리면서 우리말 연구와 정리의 방향이 모호해졌다. 그럼에도 민족혼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식이 우리



1935년 조선 표준어사정위원회 때의 조선어학회 학자들. 앞줄 오른쪽 네 번째가 이운재, 둘째 줄 오른쪽 세 번째 안경 쓴 사람이 이희승, 셋째 줄 오른쪽 세 번째가 최현배, 다섯 번째가 한징이다. (책과함께 제공)

말 사전 편찬의 원동력이 됐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대, 조선어 규범화와 조선어사전 편찬 과정에는 ‘언어 민족주의’가 크게 작용했다.

저자는 우리말 사전 편찬을 통해 우리말 권위를 세웠다는 데 의의를 둔다.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조선어사전’을 만들기 위한 조선어학회회가 조직되고 편찬사업이 진행되면서 조선어학회가 결성됐다. 아울러 사전편찬회의 출범에 대해 당시 주요 신문들도 우리말 사전의 권위를 세우는 데 일조를 했다. 통일된 어휘 지정이 필요한 데다 문명 타파로 인한 독자 수 증가와도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국문 정리의 방향을 잡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이는 이봉운, 지석영, 이능화 등 국문연구부 사람들이었다. 알려진 대로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대부이며 식민지 지식인 모임인 광문회와 계몽구락부 사람들은 사전 편찬에 뛰어들어 지식인들이었다. 또한 직접 사전을 편찬했던 심의림은 조선어 교사였다. 이들은 우리말 사전의 기초를 위해 평생

을 헌신했다. 앞선 이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학자들도 있었다. 평생 모은 사전 원고를 조선어학회에 기증한 이상춘, 대사전은 아니어도 최초 조선어사전이라 할 수 있는 사전을 펴낸 문세영, 108명의 발기인을 모아 편찬사업에 시동을 건 이극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운재 등 조선어학회 사람들도 공로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어학회 정신을 이어 마지막까지 사전 편찬에 정진했던 정태진, 김병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등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도 큰 힘이 됐다.

이처럼 책은 “그나라 말과 그나라 글은 그나라가 홀로 섬의 특별한 빛이리라”는 주시경 선생의 정신이 곳곳에 투영돼 있다. 책의 요지는 이극로 선생의 말로 요약된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니, 정신과 생명이 있으면 그 민족은 영원불변할 것이다.”

〈책과함께〉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행하는 제빵사’가 들려주는 일과 삶 이야기

## 달을 보며 빵을 굽다

쓰카모토 쿠미 지음·서현주 옮김

일본의 작은 빵집 주인인 그녀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 20일간의 빵을 굽고, 10일은 여행을 떠난다. 빵 만드는 재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단순한 식재료 여행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인연으로 확장된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요청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신이 만든 빵을 판매하기도 하고, 생산자·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도 배워 나간다.

쓰카모토 쿠미의 ‘달을 보며 빵을 굽다’는 ‘누군가의 제안에 모든 것을 걸어보는 모험의 연속이었던 삶’ 속에서 ‘나답게, 작지만 매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은 ‘여행하는 제빵사’가 들려주는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는 입사 3년차가 되던 해 제빵사가 되기로 마음 먹는다. 대학 시절 빵 좋아하는 친구 영향으로 ‘빵집 순례’를 즐겼던 그녀는 2년차 때 빵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다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오랫동안 꿈꿨던 ‘만드는 일’에 올인하기로 마음 먹는다. 우상처럼 여기던 제빵사의 제자로 들어가 7년간 제빵기술을 익힌 후 몇차례 독일을 오가며 기술은 물론이고 빵 만드는 이의 마음가짐과 자세 등을 배

운다.

그리고 2016년 도쿄를 떠나 아무 인연도 없던 효고현의 단바시에 온라인 전문 빵집 ‘히요리 브롯’을 오픈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집이라고 보다는 작업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가게를 차리기 전, 그녀는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 번째는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빵 만들기를 계속하면서도 가고 싶은 곳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떠나기 위해서였다. 또 하나는 주문 후 빵을 만든다는 원칙이었다.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책은 ‘먹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몸과 마음으로 터득한 일의 자세’, ‘생산자와 연대하다’, ‘종이서 하는 일도 이윤이 남아야 한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히요리

브롯’은 ‘달의 주기’에 맞춰 빵을 굽는다. 독일 체류시 머물렀던 빵집 제빵사들이 달의 주기에 따라 발효의 진행 속도가 달라서 반죽의 숙성 시간에도 차이를 두는 걸 보고 도입했다.

그녀는 세 가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함께 빵을 만드는 생산자들과의 인연, 자신이 일하고 살아가는 단바에 대한 애정, 그리고 빵을 만드는 의미다. 계절에 가장 맛있는 식재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질 좋은 빵을 구리하고, 생산자의 지속적인 수입을 함께 고민하고, 무조건 싼 가격어 아닌 확실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반으로 흑자를 내고자 한다. 그녀의 마음은 소비자에게 통했다. 하루 14건(빵 98개)의 처리가 한계라 5년 이상 기다림을 감수하고 주문하는 고객도 많다. 책 마지막에는 바게트, 건포도빵, 우영빵, 라벤더 빵 등 ‘히요리 브롯’만의 레시피를 실었다.

〈더슬〉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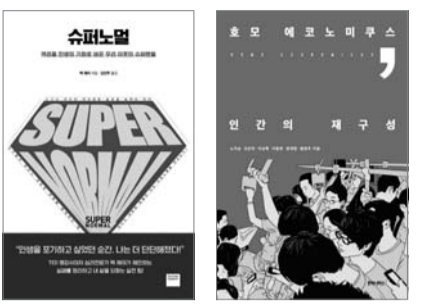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슈퍼노멀=불가항력적인 역경과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지은이 맥 제이는 회복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평범함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뜻의 ‘슈퍼노멀(supernormal)’로 칭하면서 그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임상심리학자이자 교육자인 지은이는 스포츠 스타인 안드레 에거시, 팝아트 예술가 앤디 워홀 등 유명인의 일화도 함께 소개한다. 〈와이즈베리·1만7000원〉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의 재구성=자본주의와 인문학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6명의 인문학자들에 의해 기획·집필됐다. 대학과 학문이 자본의 지배를 받고 어느 연구자도 자본의 힘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단정된 환경이며 연구에 유리한 조건인지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식은 바로 ‘돈’이다. 연구자들은 인문학의 상상력과 발상을 낡고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 〈후마니타스·1만8000원〉

▲하루사용설명서=베스트셀러 ‘인생사용설명서’ 김홍진 작가의 신작이다. ‘인생사용설명서’가 인생에서 필요한 근본적인 화두를 던진다면 이 책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일상 속에서 실현한 것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큰 후회가 ‘좀 재미있게 살걸...’라고 전하며, “재미없는 인생은 바둑”이라고 강조한다. 작가의 행복론이 흥미로운 일



화와 비유로 담겨있는 이 책에서 작가는 고통과 상처를 기쁨과 감동으로 바꿀 줄 알아야 재미있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해냄출판사·1만6000원〉

▲이인좌의 봄=역사에 미처 담기지 못한 패자의 시선으로 무신봉기의 진행 과정을 정밀하고 생생하게 그려냈다. 무신 혁명군의 봉기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노론·소론·남인의 당쟁이 극심했던 조선 정당정치의 폐해가 표출된 사건이며, 농업생산력 증가와 상업업 발전으로 인해 유민으로 전락한 농민, 두 차례의 큰 전란과 정부의 실정으로 삶이 파멸해져 가던 피지배층의 저항이 행동으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인문서원·1만5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남극동물의 사생활: 김조지침 편=책의 지은이 김정훈 박사가 만난 남극동물은 새하얀 눈 위에 뒹뒹거리며 걷거나 뒹굴거리는 펭귄과 물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매년 녹아내리며 후퇴하는 빙하, 살아남기 위해 동쪽까지도 잡아먹는 동물들의 사투의 현장을 소개한다. 책은 가능한 ‘동물’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다각화된 다면적인 기법으로 풀어냈다. 필름을 여러 컷을 이어붙인 것 같은 연속 사진을 비롯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말풍선은, 남극동물들의 삶을 더욱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지오북·1만5000원〉

▲용감한 강아지(이야기 속담 그림책 9)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가 무슨 뜻이에요? 라는 질문에 ‘경험 없는 사람이 철없이 답한다’는 대답 보다 속담이 녹아든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 속담 그림책’ 시리즈는 유쾌하고 따뜻한 속담 속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고, 속담을 넘어선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기에도 한다. 〈키큰도토리·1만3000원〉



▲도깨비감투=김 서방은 도깨비감투를 쓰면 자신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는 시장에 가서 맛있는 떡도 훔쳐 먹고, 멋진 옷도 훔쳐 입는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모조리 지게에 실어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는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는 법. 모닥불에서 날린 작은 불씨에 그만 도깨비감투를 쓴 김 서방의 정체가 탄로 난다. 결국 동네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도깨비들에게도 혼 쏘이 나고 만다. 〈하루놀·1만1800원〉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 위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